

十五世紀 國語 ‘ㅅ’系 合用竝書의 音價에 대한 再論

문 병 열 *

I. 서 론

본고의 목적은 15세기 국어에 나타나는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를 추정하며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다.

‘ㅅ’계 합용병서에 대한 연구 업적은 질적·양적으로 이미 포화상태라 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에 대한 습·된 견해는 없어 보인다.¹⁾ 관련된 자료의 양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한,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를 再論하는 것은 一見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정된 자료일지라도 그에 대한 해석과 접근방법의 차이에 의해서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가장 타당한 접근방법의 선택은 자료의 한계를 안고 있는 연구에서 그 成敗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ㅅ’계 합용병서에 대한 논의를 다시 꺼냄에 있어, 본고는 이에 대하여 좀더 타당한 접근방법을 모색해 보는 시도라 할 수 있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1) 합용병서에 대한 연구서는 도수희(1971), 김형주(1987), 오정란(1988), 박창원(1990)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고영근(1993: 10)의 ‘총체서술’은 한 언어의 문법체계 전반을 빠짐없이 기술하는 것으로, ‘계층, 지역,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는 언어의 구두형태와 서사형태를 한 그릇에 담아 공간적 변이와 시간적 변화를 한 눈으로 굽어볼 수 있게 하는 총괄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총체서술’은 어떤 언어의 특수한 현상을 기술함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목표점과 같은 것이다. 본고에서는 고영근(1993)의 ‘총체서술’이라는 입장에 서서,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을 통해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를 추정할 것이다.

- (1) a. 體系的 接近
- b. 通時的 接近
- c. 通空的 接近
- d. 類型論的 接近

(1a)의 체계적 접근방법은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체계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1b)의 통시적 접근방법은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에 대해 15세기를 기점으로 그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1c)의 통공적²⁾ 접근방법은 15세기 통공적으로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가 중앙어와 지역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추정해 보는 것이다.³⁾ 마지막으로 (1d)의 유형론적 접근방법은 현대 음운이론과 어두 자음군의 범언어적 분포 양상을 통해 15세기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를 추정하는 것이다.⁴⁾

-
- 2) 본고의 ‘통공적 접근’은 통공태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통공태란 통시태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을 총괄하는 뜻으로 사용한다(고영근 1993: 179).
 - 3) 현재 남아있는 자료만으로 15세기 통공태의 완전한 모습을 살필 수는 없다. 16세기 동남방언의 전사 자료인 『高麗詞之事』의 예와 현재 평북방언형인 ‘시더구’ 등의 예를 통해서 15세기 통공태의 모습에 대한 암시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서술하겠다.
 - 4) 유형론적 접근방법은 고영근(1993)의 ‘총체서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한 언어의 모습을 온전히 기술하는 데 있어서 유형론적 관점은 그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갖대를 제공해 준다. 이는 ‘총체서술’의 의의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2장에서는 ‘ㅅ’계 합용병서의 연구사를 각 說에 따라 정리할 것이고, 3장에서는 (1)의 ‘총체서술적 접근방법’을 통해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를 추정할 것이다. 4장에서는 논의의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을 것이다.

II. 기존 논의의 검토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 있다. 최현배(1942), 허웅(1965)로 대표되는 各音說과 이기문(1955, 1972b)로 대표되는 硬音說이 그것이다. 김민수(1955)는 이 두 학설의 절충적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연구로, 박창원(1987, 1996), 정연찬(1997) 등에서도 各音說과 硬音說을 절충하여 그 나름의 결론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이제 각 학설의 중심 논거를 확인해 보겠다.

1. 各音說

各音說은 최현배(1942), 허웅(1965)로 대표되며, ‘ㅅ’계 합용병서가 자음군이었음을 주장하는 학설이다. 김차균(1984), 유창돈(1975), 권재선(1977, 1978)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모두 ‘ㅅ’계 합용병서를 자음군으로 보았지만 그 음가에 대한 견해는 다르다. 본고에서는 최현배(1942), 허웅(1965)의 내용을 중심으로 各音說의 논거를 확인해 보겠다.

(3) 各音說의 주요 논거

- a. 『訓民正音』에 ‘ㅅ’계 합용병서가 ‘ㅆ’계 합용병서와 같이 설명되었다.
- b. 외국말을 우리말로 음역하거나, 우리말을 외국어로 음역할 때, ‘ㅅ’계 합용병서가 표기되었다(『五大眞言』, 『高麗詞之事』).

『五大眞言』	梵語	한글전사	
	skṛitvā	스키투바	
	svapna	쌌나	
	sphoṛita	스프리다	(강길운 1957: 32)

『高麗詞之事』	가나	中期朝鮮語	
娘	스타리	sdar	
雉	스코그	sgueŋ	
帶	스테이	sdii	(福井 玲 1993: 119)

- c. ‘ㅁ’이 [ps]의 표기라면 ‘ㅁ’이나 ‘ㅁ’의 첫 ‘ㅁ’도 [ps]의 음가일 것이다.
d. 『三國史記』의 ‘舒發翰, 舒弗邯’은 ‘角干’과 동의어이고, 15세기의 ‘쌀’에 해당한다.
e. 평북방언에서 ‘떡’을 ‘시더구’라 하는데 이는 15세기 ‘씩’과 대응한다.⁵⁾
f. ‘사하’(釋詳 19:14)의 ‘ㅁ’는 그 음가가 [s]를 선행하는 자음군일 수밖에 없다.

(3a)의 논거는 『訓民正音』의 서술을 기반으로 한다. 『訓民正音』은 새로운 문자인 訓民正音에 대한 일종의 해설서로 그 제자원리 및 운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訓民正音解例』의 습字解에서 ‘ㅁ’계 합용병서를 ‘ㅁ’계 합용병서와 같이 설명한 것은, 곧 ‘ㅁ’계 합용병서가 모두 발음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3b)의 논거는 외국어 전사자료로서, 『五大眞言』, 『高麗詞之事』를 들고 있다. 『五大眞言』은 범어를 한자로 음역한 자료를 다시 훈민정음으로 음역한 자료이고, 『高麗詞之事』는 동남방언을 일본어 가나로 전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자료의 성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3c)의 논거는 논리적인 논거로서, ‘ㅁ’이 [ps]로 발음되었으니, ‘ㅁ’은 당연히 [psk]로 발음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ㅁ’계 합용병서가 경음이었다면, ‘ㅁ’은 [pk]로 발음되었을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3d)의 논거는 『三國史記』의 예인데, 이에 대한 비판으로 자료의 시기가 문제될 수 있다. 『三國史記』는 ‘ㅁ’계 합용병서가 이전 시기에 ‘ㅁ’이 발음되었음을 알려주지만 15세기 공식적으로 여뻤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3e)의 예는 ‘ㅁ’계 합용병서의 화석이 남아있는 방언형이다. 이 역시 방언이라는 점에서 ‘ㅁ’계 합용병서의 음가 추정에 적극적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

5) 『濟州道方言研究 - 第一輯 資料篇』의 494면에 제시되어 있는 ‘시동주다’의 ‘시동’과 『전남방언사전』의 376면에 제시되어 있는 ‘시동’도 15세기 어형이 ‘쫑’과 어원이 같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부류에 속한다.(고동호 2004: 156, 각주 10).

다. (3f)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없으나, 唯一例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2. 硬音說

硬音說은 이기문(1955, 1972b)으로 대표되며, ‘ㅅ’계 합용병서가 경음이었음을 주장하는 학설이다. 이남덕(1968), 도수희(1971), 박병채(1977)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硬音說의 주요 논거는 이기문(1955, 1972b)에 집약되어 있으며 본고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硬音說의 논거를 정리하겠다.

(4) 硬音說의 주요 논거

- a. ‘ㅅ’은 ‘사이시옷’으로 사용되어 선행어의 불과화와 후행어 두음의 경음을 표시한다.
- b. ‘쑤, 쑤름, 쑤, 쑤장’ 등이 종성 ‘ㅅ’의 뒤에서 ‘분, 드름, 괴, ㅁ장’ 등으로 표기되는데, 이는 ‘쑤, 쑤름, 쑤, 쑤장’의 두음이 경음이기 때문이다.
- c. ‘ㅅ’계 합용병서의 ‘ㅅ’은 그 흔적이 현대어에 남아 있지 않다.
- d. 『鷄林類事』의 ‘寶姐’은 제1음절 위치의 모음이 탈락하여 ‘뽕’이 되고, 이것이 다시 경음으로 되어 ‘뽕’로 된 것이다.
- e. 각자병서의 폐기는 경음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경음 표기의 단일화 때문이다.
- f. 어두 ‘ㅅ’계 합용병서의 생성은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가 경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4a)의 논거는 15세기에 ‘ㅅ’이 사잇소리 표기로 사용되었으며 그 음가가 [ʔ]일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후행음의 두음이 경음화되는 것을 ‘ㅅ’이 표시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잇소리 표기에 사용된 ‘ㅅ’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를 음절말의 모든 ‘ㅅ’에 적용시킬 수 없다. (4b)는 앞 음절에 종성 ‘ㅅ’이 있을 경우 ‘쑤’이 ‘분’으로 표기되는 경우인데, 이는 앞 음절의 종성 ‘ㅅ’이 뒷 음절의 초성 ‘ㅂ’을 경음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ㅅ’ 이외에 ‘ㄱ, ㄷ, ㅂ’ 역시 뒷 음절의 초성을 경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ㄱ, ㄷ, ㅂ’ 종성 뒤에 연결되는 ‘쑤, 쑤, ㅁ’ 역시 ‘ㅂ, ㄷ, 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야 하지만 15세기에 그런 경우는 없다. 이 논거는 오히려 各音說을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4c)는 중앙어의 ‘사

나이~사내)가 있으므로 강하게 주장될 수 없는 논거이다. (4d)는 硬音說의 강력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도 의문은 있다. ‘쌀’이 경음화에 의해서 ‘쌀’로 된 것이라면, ‘ㅅ’계 합용병서의 경음화가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ㅅ’계 합용병서는 표기상으로 18세기까지 사용되었으며, ‘ㅅ, ㅆ, ㅈ’의 된소리화는 17세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기문 1972b: 62~63). (4e)는 硬音說의 증거로 들고 있지만, 이는 各音說을 지지해 주는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다. (4e)가 硬音說의 증거로 사용된다면, 15세기 후반까지 국어에는 두 종류의 경음, 즉 각자병서로 표기되는 경음과 ‘ㅅ’계 합용병서로 표기되는 경음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가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4e)는 적어도 각자병서가 폐기되기 이전까지는 ‘ㅅ’계 합용병서가 모두 발음된 것을 지지해 주는 것이다. (4f)의 논거가 硬音說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닌가 한다. ‘ㅅ스-, 썩-, 썩-’ 등이 15세기에 ‘그스-, 텅-, 빙-’ 등과 혼기되어 나타나며, 후자가 전자보다 시기상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어두에 [s]음이 첨가될 수 없으니, 위의 예들은 경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국어에서 경음이 음소로 자리 잡게 된 시기, 음절말 ‘ㅅ’이 완전히 불파화되는 시기 등과 관련되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III.2.에서 논의하겠다.

3. 折衷說

김민수(1955: 30)에서는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가 된소리이기는 하지만 본음가 ‘ㅅ’이 잠재되어 있어서 어떤 환경에서는(용이하게 발음되는 때) ‘ㅅ’의 음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창원(1987, 1996)에서는 각자병서 폐기 전의 ‘ㅅ’계 합용병서는 자음군이었으며(어휘에 따라 다름), 각자병서 전폐 이후인 1460년대 이후에 어두 ‘ㅅ’계 합용병서가 경음으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정연찬(1997)에서는 ‘ㅅ’계 합용병서가 어두에서는 자음군으로 비어두에서는 경음으로 실현되었으며, 16세기에 ‘ㅅ’이 불파화되어, ‘ㅅ’과 ‘ㄷ’이 중화되면서, ‘ㅅ’이 후행 자음을 경음화시키게 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折衷說은 결국 各音說과 硬音說을 절충한 것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논리적 모순을 피한 것이다. 사실, 各音說과 硬音說은 서로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한 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은 반드시 포기해야만 성립되는 가설이다. 그러나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경음과 자음군 두 가지로 실현되어야만 모든 자료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折衷說은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III.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추정

1. 體系的 接近

본절에서는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체계적 접근이란, 15세기 음운체계 내에서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가 어떻게 추정되어야 체계에 부합하고 관련된 다른 사실들과 모순이 없을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訓民正音解例』의 서술을 살펴보겠다.

(5) 『訓民正音解例』 合字解의 내용⁶⁾

初聲二字三字合用竝書 如諺語ㅅㅅ爲地 ㅅㅅ爲雙 ㅅㅅ爲隙之類
 中聲二字三字合用 如諺語과爲琴柱 ㅅㅅ爲炬之類
 終聲二字三字合用 如諺語ㅎ爲土 ㄴㅅ爲釣 ㄴㅅㅅ爲酉時之類
 其合用竝書 自左而右 初中終三聲皆同

위의 진술에 따르면, 15세기 합용병서는 그 위치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초성과 중성, 중성 합용병서가 그것이다. 중성과 중성 합용병서가

6) 『訓民正音解例』의 서술에서 ‘字’에 대한 해석이 문제될 수 있다. ‘字’를 단지 글자로 파악하게 되면 위의 서술은 글자의 운용방식을 이야기할 뿐 그 음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암시도 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중성, 중성의 서술이 그 음가와 일치함을 근거로 하여 위의 서술이 글자의 운용과 함께 그 음가 추정에도 사용할 수 있는 논거라 생각한다.

모두 제 음가를 가지고 있었다면 초성 합용병서 역시 음가대로 발음되었을 것이다. 또 ‘ㅂ’계와 ‘ㅃ’계 합용병서가 모두 발음되었다면, ‘ㅅ’계 합용병서 역시 모두 발음되었을 것이다.⁷⁾

다음으로, 음절말 ‘ㅅ’의 음가를 확인해 보겠다. 음절말 ‘ㅅ’의 음가는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음절말의 ‘ㅅ’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넘어 가서 표기된 예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음절말에서 ‘ㅅ’이 [s]로 발음되었다면, 자음군의 ‘ㅅ’도 [s]로 발음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허웅(1965), 이기문(1972b)에 기대어 음절말 ‘ㅅ’이 [s]로 발음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잇소리와 일반적인 ‘ㅅ’의 음가는 구분한다.⁸⁾

다음은 음절말 ‘ㅅ’과 자음군 ‘ㅅ’의 혼기례이다.

(6) 음절말 ‘ㅅ’과 자음군 ‘ㅅ’의 혼기례

음절말 ‘ㅅ’	자음군 ‘ㅅ’
갓꺄(月釋 1:17), 갓마니(杜詩 16:57)	가사라(月釋 7:8), 가까(釋詳 13:20)
닷가(月釋 2:25), 닷곤(月釋 2:37)	다사라(月釋 7:14), 다까(釋詳 13:20)
깃브다(釋詳 13:7)	기쓰기(釋詳 13:25)
갓나히(釋詳 19:14)	싸히(釋詳 19:14)

이러한 혼기는 15세기 국어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15세기 음절말 자음체계와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를 모순 없이 기술하는 방법은 이들 ‘ㅅ’이 모두 [s]로 발음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특히, 마지막 예인 ‘갓나히’⁹⁾(釋詳 19:14)와 ‘싸히(釋詳 19:14)’의 혼기는 음절말의 ‘ㅅ’과 자음군의 ‘ㅅ’이 같은 음가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소리가 [s]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7) 도수희(2002)에서는 합용병서에 대해 초성, 중성, 종성 합용병서 모두를 같은 방식으로 고찰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8) 이는 권재선(2001), 이선영(2005)의 논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9) ‘갓나히’는 접두사 ‘가-’와 어기 ‘싸히’로 분석된다(허웅 1985: 358).

다음으로 15세기 외국어 전사체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기문(1972b: 8)에서는 訓民正音이 세 가지의 상이한 자료를 표기하기 위한 것이라 보고 있다. 고유어 표기, 외래어 표기, 외국어 표기가 그것인데, 15세기 외국어 전사표기 중, ‘ㅅ’계 합용병서와 관련된 자료로 『五大眞言』이 있다. 강길운(1957)의 예를 통해 ‘ㅅ’계 합용병서의 외국어 전사표기를 확인해 보겠다.

(7) 『五大眞言』의 ‘ㅅ’계 합용병서 표기례

梵語	한글전사
skritvā	스리드바
svapna	쌌나
sphorita	쓰리다

『五大眞言』은 唐僧 不空이 梵文으로 된 眞言을 한자음으로 대역한 것을 다시 仁粹王后가 訓民正音으로 음역하여 成化二十一年(1485)에 간행한 것이다(강길운 1957: 2). 따라서 이 자료는 외국어의 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전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를 추정하는 자료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자음 내지 梵文을 근거하여 이를 훈민정음으로 전사한 것이고, 또 전사하는 언어체계에서 발음할 수 없는 표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¹⁰⁾

『五大眞言』의 예는 아니지만, 망월사본 『진언집』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五音之字若與 上十二聲反之則與漢字反
若與下超音相合 則與乞漚之類 上字半訓下字全訓(망월사본 진언집 권수: 22b)

10) 외국어를 전사하는 데 있어서, 한글 자모를 전사표기 알파벳으로 사용한 경우, 이 표기 예들이 인위적인 경우가 더러 있다. 따라서 『五大眞言』의 자료 역시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15세기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가 확인되지 않는 한, 『五大眞言』의 예들을 단순한 표기의 문제로 여겨 이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五音字 중에 만약 12성과 반대인 것은, 한자 반절식과 같다. 만약 아래 超音과 서로 합하여져 마치 乞酒처럼 위 글자의 半訓과 아래 글자의 全訓이 합하여진 것이다.”

(乞酒는 [kʰsa]로 읽힘.) (안주호 2002: 98)

이는 眞言의 한자 표기에 대한 일종의 설명인데, 한자에는 어두 자음군을 표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반절식 표기를 통해서 하고, 이를 읽을 경우 반절과 같이 읽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五大眞言』의 한역 표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훈민정음으로 음역한 경우 이러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 만약, ‘ㅅ’계 합용병서가 고유어 표기에서 ‘경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면, 범어를 전사한 『五大眞言』의 예들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ㅅ’계 합용병서는 고유어에서는 경음을 표기하는데, 『五大眞言』에서는 자음군으로 발음해야 한다.”라는 식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¹¹⁾

본절에서는, 竝書體系, 音節末 子音體系, 外國語 轉寫體系에 부합하는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를 정리·검토하였다. 이들 체계에 부합하는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는 각각의 소리가 모두 제 음가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通時的 接近

본절에서는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를 추정하기 위해, 15세기를 기점으로 그 이전 시기의 모습과 그 이후의 변화양상을 확인해 보겠다. 먼저, 『三國史記』에는 ‘舒發翰, 舒弗邯’와 같은 어형이 나오는데 이는 ‘角干’과 동의어이다. ‘角干’은 15세기의 ‘썰’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적어도 15세기 이전 어느 시기에는 ‘ㅅ’계 합용병서의 ‘ㅅ’이 [s]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당시의 어형이 합용병서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즉 ‘*스블’과 같이

11) 범어는 어두 자음군이 올 수 있는 언어인데, 자음군을 한역할 때는 聲母를 중심으로 二合이나 三合의 重字로 표기했는데, 한글로는 합용병서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진언의 합용병서 자들은 된소리가 아닌 낱말의 소리가 모두 소리값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안주호 2002: 108).

2음절일 가능성도 있다.¹²⁾

15세기 중기 자료인 『海東諸國記』에는 ‘シトメテ’ 단어를 ‘쏘미다’로 전사하였다. 이는 15세기 중기에도 ‘ㅅ’계 합용병서가 [s]의 음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壬辰亂 시기에 대마도 역관들이 동남방언을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高麗詞之事』에서 ‘ㅅ’계 합용병서가 가나 ‘스’[su]로 전사되어 있다. 16세기 자료라 할 수 있는 『高麗詞之事』에서 이런 자료가 나온 것은 적어도 동남방언의 경우 ‘ㅅ’계 합용병서가 [s]음을 보존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高麗詞之事』의 자료가 당시의 음을 轉寫한 것인지, 아니면 훈민정음 표기를 轉字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¹³⁾

16세기 이후의 ‘ㅅ’계 합용병서는 경음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당시부터 어두 경음화가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경음화된 어형을 모두 ‘ㅅ’계 합용병서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음절말 종성 ‘ㅅ’의 불과화 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15세기 중엽까지 8종성의 하나로 ‘ㅅ’은 음절말에서 제 음가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음절말 ‘ㅅ’이 16세기에 접어들면서 불과화되어 음절말 종성은 7종성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이는 16세기 이후 음절말에서 ‘ㅅ’과 ‘ㄷ’의 혼기레가 많아진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어두 경음화 현상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어두 경음화의 확산이라는 언어적 변화는,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가 자음군에서 경음으로 변화된 것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한 가지 설명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이는 15세기에 나타난 ‘ㅅ스-, 썩-, 썩-’ 등의 예들이다. 이 예들은 어두 경음화를 겪은 초기의 어형들로서 산발적 음운현상이며 일종의 개신형으로 볼 수 있다.¹⁴⁾ 이들은 16세기 어두 경음화 확산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12) 이기문(1955), 도수희(2002) 등에서는 ‘어중 모음 탈락’에 의해서 합용병서가 만들어진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13) 『高麗詞之事』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기문(1988)을 참고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 자료가 ‘ㅅ’계 병서의 ‘ㅅ’을 ‘su’로 기록한 사실은 홀로 보아 넘길 수 없는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표기가 한글 표기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우선은 이런 영향이 없었다는 전제 위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이기문 1988: 16).”라고 언급하고 있다.

위의 논거들을 통해 적어도 15세기 이전에는 ‘ㅅ’계 합용병서가 [s]로 발음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海東諸國記』를 통해 15세기 중기에도 ‘ㅅ’계 합용병서가 [s]로 발음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高麗詞之事』는 16세기에도 동남방언에서 ‘ㅅ’계 합용병서가 [s]로 발음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평북방언의 ‘시더구’, 제주방언, 전남방언의 ‘시동’을 통해,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현재도 ‘ㅅ’계 합용병서의 [s]가 화석형에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어의 ‘사나이~사내’ 역시 ‘ㅅ’계 합용병서의 [s]가 화석형에 남아 있는 경우이다. 16세기 이후 중앙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방언에서 ‘ㅅ’계 합용병서는 경음으로 재구조화되었다.

‘ㅂ’계 합용병서는 대부분 경음으로 발달하였으나(BC, BK, BK), 일부는 유기음화하거나¹⁵⁾(‘뿔- > 털-’) ‘ㅂ’이 탈락한 경우가(BE) 있다. 그러나 ‘ㅅ’계 합용병서는 모두 경음으로 발달하였다. 이 역시 음절말 ‘ㅅ’의 불과화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3. 通空的 接近

‘방언과 문헌어의 정밀한 연구를 위해, 문헌어의 연구에는 방언자료를, 방언의 연구를 위해서는 문헌어의 자료를 상호보완적으로 이용하는’(이태영 1988: 2) 것은 대부분의 국어사 연구 또는 방언 연구에서 취하는 방법론이다. 본절에서는 현재 여러 방언의 자료를 통해 15세기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에 대한 추정을 시도할 것이다.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15세기 중앙어에 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는 『訓民正音』에서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를 다른 병서와 同軌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15세기 중앙어에서 ‘ㅅ’계 합용병서가 [s]음가를 지니고 있었음을

-
- 14) ‘공시적인 면에서 예외현상이란, 통시적인 면에서 고려할 때, 이전 단계의 흔적으로 앞단계의 언어체계를 반영하든가, 새로운 개신의 시작으로서 다음 단계의 언어체계에 대한 암시를 보여준다(박창원 1987: 205). 본고에서는 ‘ㅅㅅ-, ㅅㅅ-, ㅅㅅ-’ 형태를 개신형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어형들이 15세기에 공시적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 추정에 심각한 반론이 제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 15) ‘ㅂ’계 합용병서가 유기음화한 것은 대부분 제주방언에 나타난다.

추정할 수 있다. 壬辰亂 시기에 대마도 역관들이 동남방언을 전사한 『高麗詞之事』에서 ‘ㅅ’계 합용병서가 ‘ㅅ’[su]로 전사되어 있다. 이는 16세기 동남방언에서 ‘ㅅ’계 합용병서가 [s]음을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평북방언에서 ‘떡’을 ‘시더구’라 하는데 이는 15세기 ‘씩’과 대응된다. 玄平孝(1962), 『濟州道方言研究 - 第一輯 資料篇』의 494면에 제시되어 있는 ‘시동주다’의 ‘시동’은 15세기 어형 ‘쑹’과 어원이 같다. 또, 이기갑 외 편(1997), 『전남방언사전』의 376면에 제시되어 있는 ‘시동’ 역시 15세기 어형 ‘쑹’과 대응된다.

위의 예들은 시기를 달리하고 있지만, ‘ㅅ’계 합용병서가 15세기 공시적으로, 중앙어, 동남방언, 전남방언, 평북방언, 제주도방언에서 [s]가 선행하는 자음군으로 발음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4. 類型論的 接近

본절에서는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에 대한 유형론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유형론적 접근은 유형론의 연구방법론을 통해 얻어진 범언어적 보편성 내지 경향성을 15세기 국어에 적용해 보는 방법이다.

언어 연구에 있어서, 범언어적 보편성에 대한 연구는 언어학의 최대 목표로 꾸준히 지향되어 왔다. 유형론자들은 모든 언어에 공통되는 음운·형태·통사·의미적 보편성이 있음을 가정하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 왔고, 어느 정도의 성과도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인구어의 편견에 경도되어 편향된 기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전의 여러 언어 이론에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범언어적 보편성이 현재 대부분의 언어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전 시기 언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음성·음운적 보편성은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한다. 인간의 발성기관이 단기간에 진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유형론적 보편성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7개 언어의 어두 자음군의 분포를 확인해 보았다.¹⁶⁾

(8) 7개국 언어의 어두 자음군 분포

	과열음 + 공명음														마찰음 + 공명음/과열음												
	bl	br	cl	cr	dr	gl	gr	kl	kn	kr	pl	pr	tr	vl	vr	fl	fr	sc	sf	sk	sl	sm	sn	sp	st	sq	sr
DU	○	○	○	○	○	○	○	○	○	○	○	○	○	○	○	○	○		○	○	○	○	○	○	○	○	
EN	○	○	○	○	○	○	○	○		○	○	○	○	○	○	○	○		○	○	○	○	○	○	○	○	○
SW	○	○								○	○	○			○	○			○	○			○	○			
UZ							○				○	○													○		
NE		○					○			○	○														○		○
IN	○	○			○	○	○	○	○	○	○	○			○	○			○	○	○	○	○	○	○	○	○
CA	○	○	○	○	○	○	○			○	○	○			○	○											

DU: Dutch, EN: English, SW: Swahilli, UZ: Uzbek, NE: Nepali, IN: Indonesian, CA: Catalan

위의 자료를 통해 몇 가지의 범언어적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어두 자음군을 쉽게 허용하는 언어와 그렇지 않은 언어가 있다. 네덜란드어, 영어, 카탈란어, 인도네시아어 등은 전자에 속하고, 스와힐리어, 우즈베크어, 네팔어는 후자에 속한다. 둘째, 카탈란어의 예를 통해서 ‘과열음+공명음’의 연쇄가 ‘마찰음+공명음/과열음’의 연쇄보다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조사 대상 언어에서 ‘마찰음+공명음/과열음’ 연쇄를 포함하지 않

16) 7개 언어는 각 어족/어군들 중에서 선택하였고, 이들 중 어두 자음군을 허용하지 않는 언어는 제외하였다(중국어, 일본어 등). 네덜란드어와 영어는 인구어로 서게르만어에 속한다. 스와힐리어는 베누에 콩고어로 반투어에 속한다. 우즈베크어는 투르크어에 속한다. 네팔어는 동-중앙 인도어에 속한다. 인도네시아어는 오스트로네시아어족에 속한다. 카탈로니아어는 인구어로 로망스제어에 속한다.

각 언어의 어두 자음군은 사전을 통해 확인하였다. 로마자 알파벳으로 전사된 발음정보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bh, ch, dh, gh, kh, sh, gw, tw, ts, th’ 등은 자음군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다만 네팔어의 ‘br’은 ‘bhr’이다. 또한 세 자음 이상의 자음군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두 자음 연쇄를 파악하는 것만으로 본고의 논의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스와힐리어의 ‘m, n’ 어두자음군 역시 제외하였는데, 이들 자음군은 성절적 비음을 선행하는 것으로 ‘m, n’ 등이 하나의 음절을 구성하기 때문이다(mzee, mtu 등).

는 언어는 없다. 넷째, [s]로 시작하는 어두 자음군이 다른 자음으로 시작하는 자음군에 비해 4배 정도 많다.

첫째 경향성을 통해 어두 자음군을 허용하는 언어와 그렇지 않은 언어가 있으며, 스와힐리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등에서처럼 몇 가지 연쇄만 가능한 경우는 보통 차용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경향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어두에 자음이 연속되는 것은 아무래도 발음이 쉽지 않다. 따라서 모든 자음의 연쇄가 어두 자음군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둘 또는 세 자음이 연결될 때 그 중 최소한 한 자음은 공명도가 높아야 한다. 따라서 공명음이 포함된 자음군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마찰음+파열음’의 연쇄가 가능한 것은 마찰음이 그나마 공명도가 높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파열음+파열음’의 연쇄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인다. 이를 통해 어두 자음군 허용의 범언어적 경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9) 어두 자음군의 범언어적 경향성(1)

범언어적으로 어두 자음군은 공명도가 높은 자음이 낀 연쇄일 경우 더 쉽게 허용된다. 따라서, 어떤 언어에서 더 낮은 공명도를 갖는 자음연쇄가 어두 자음군으로 허용될 경우, 그보다 높은 공명도를 갖는 자음연쇄는 어두 자음군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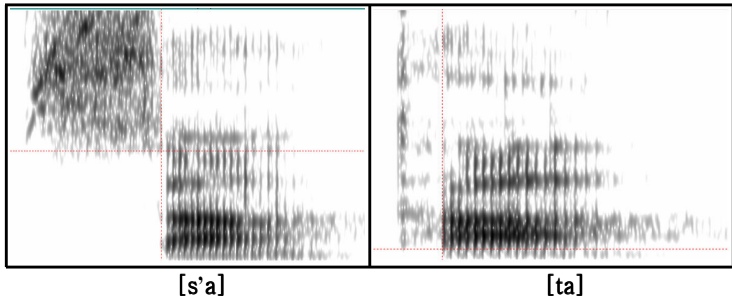
셋째, 넷째 경향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조사 대상 언어에서 어두 자음군이 확인된 모든 언어에 마찰음 계열의 어두 자음군이 있는 것은, ‘마찰음’이 청취하기 쉬운 소리이기 때문이다. 마찰음은 그 음성적 특성상, 청취가 매우 용이하다. 마찰음의 경우 파열음이나 파찰음에 비해 음의 지속

17) Spencer(1996)의 공명도 척도는 다음과 같다(전상범 2004: 392).

- 모음 6
- 전이음 5
- 유음 4
- 비강음 3
- 마찰음/파찰음 2
- 폐쇄음 1

시간이 매우 길다. 또한 마찰음의 스펙트로그램을 보면, 4000Hz 이상의 음역에 꽤 강한 마찰소음의 음역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파열음이나 파찰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마찰음의 인식가능성이 높게 되는 이유이다. 마찰음[s']와 파열음[t]의 스펙트로그램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0) 마찰음[s']와 파열음[t]의 스펙트로그램¹⁸⁾



Steriade(2001)과 Fleischhacker(2005)에서는 인식가능성(Perceptibility)이라는 제약을 통해 영어와 여러 언어의 자음군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어두 자음군이 허용되는 조건, 어두 자음군을 갖는 형태의 중첩에서 나타나는 자음탈락, 어두 자음군을 갖는 차용어의 수용에서 일어나는 자음탈락 및 모음삽입에 대한 제약을 인식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술하였다. 이를 P-Map이라 하였는데, 이들 연구에서도 마찰음의 인식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자음군 형성에 자주 나타나며, 첩어형성, 차용어 수용에서도 탈락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범언어적 경향성으로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11) 어두 자음군의 범언어적 경향성(2)

만약 어떤 언어에 어두 자음군이 있다면, 마찰음 계열의 어두 자음군 역시 있을 것이다.

18) 마찰음과 파열음의 스펙트로그램을 제작해 주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서승완 학형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두 자음군의 범언어적 경향성을 15세기 국어의 합용병서에 적용해 보겠다. ‘ㅂ’계 합용병서가 모두 발음되었다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만약 15세기에 ‘ㅃ, ㅃ’ 등의 ‘과열음+과열음’ 연쇄가 모두 발음되었다면, (9, 11)의 범언어적 경향성에 의해서 ‘ㅅ’계 합용병서의 ‘마찰음+과열음’ 연쇄도 발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¹⁹⁾

IV. 결 론

본고는 허웅(1965)의 논거와 이기문(1972)의 논거를 ‘총체서술’이라는 입장에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가 [s]로 시작하는 자음군이라는 허웅(1965)의 논거가 언어학적으로 좀더 무게 있는 논거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어두 자음군의 범언어적 경향성을 생각할 때, ‘ㅅ’계 합용병서는 어두 자음군일 가능성이 높다. 본고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15세기 ‘ㅅ’계 합용병서는 ‘ㅂ’계 합용병서와 마찬가지로 어두 자음군이었다. 이에는 체계적 증거, 통시적 증거, 통공적 증거, 유형론적 증거가 있다. 다만, 사잇소리와 관련된 ‘ㅅ’계 합용병서와 ‘ㅆㅆ-, 췌-, 췌-’ 등의 표기는 경음으로 본다.
- 2) ‘ㅅ’계 합용병서가 경음으로 재구조화된 시기는 16세기로 생각하며, 이 시기는 음절말의 ‘ㅅ’이 완전히 불파화되어 ‘ㄷ’과 중화된 시기이다.
- 3) 16세기에 들어 어두 경음화 현상이 급격히 확산되는데, 이를 통해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가 자음군에서 경음으로 변화되었음을 추정할 수

19) (9)의 범언어적 경향성에 의하면 ‘ㅅ’계 합용병서가 ‘ㅂ’계 합용병서보다 먼저 사라지게 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개별 언어에서는 범언어적 경향성을 따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보통 그 언어가 A 어군과 B어군 사이의 접경 지역에 위치하거나, 그 언어에서만 발견되는 특수한 통시적 과정을 겪었을 때 나타난다. ‘ㅅ’계 합용병서가 ‘ㅂ’계 합용병서보다 먼저 사라지게 된 것은 음절말 ‘ㅅ’의 불파화라는 통시적 과정의 영향 때문이라 생각된다.

있다. 15세기에 나타난 ‘스스-, 썩-, 썩-’ 등의 예들은 산발적 음운현상이며 일종의 개신형이다.

- 4) ‘ㅅ’계 합용병서가 ‘ㄷ’계 합용병서와 달리 그 음가를 유지하고 있는 화석형이 적은 이유는, ‘ㄷ’계 합용병서는 그 변화 방향이 다양하였지만, ‘ㅅ’계 합용병서는 경음으로 일정하게 변화하였기 때문에 ‘ㅅ’계 합용병서는 모두 경음으로만 남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평북방언의 ‘시더구’, 제주도방언, 전남방언의 ‘시동’과 현재 중앙어인 ‘사나이~사내’는 예외이다.

참고문헌

1. 사전류

- 김영중 편(1996), 『네덜란드어 한국어 사전』,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김윤진·권명옥 편(1999), 『스와힐리어 한국어 사전』,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안영호 편(1966), 『현대 인도네시아 한국어 사전』,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이기갑 외 편(1997), 『전남방언사전』, 태학사.
玄平孝(1962), 『濟州道方言研究 - 第一輯 資料篇』, 精研社.
Khakimov Kamran M.(1994), *Uzbek-English English-Uzbek Dictionary*, hippocrene books, New York.
Longman (ed.)(1997), *The Longman Interactive American Dictionary*, First Edition, Longman.
Prakash A. RAJ(1992), *Nepali-English English-Nepali Dictionary*, hippocrene books, New York.
Sabater M.S. & Freixinet J.A.(1990/1993), *Catalan-English English-Catalan Dictionary*, hippocrene books, New York.

2. 연구 논저

- 강길운(1957), 「五大眞言 音譯考 - 竝書를 중심으로 -」, 『일석 이희승선생송수기념논총』, 23~49면.
고동호(2004), 「15세기 국어 음운체계 연구」, 『2004년 겨울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눈피 허웅 선생의 학문 세계 -』, 151~168면.
고영근(1993),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일지사.
권재선(1977), 「합용병서의 음가고」, 『영남어문학』 4호, 영남어문학회, 43~68면.
_____(1978), 「중세어 합용병서의 음가속론」, 『영남어문학』 5호, 영남어문학회, 1~24면.
_____(2001), 「사이시옷의 음가 고찰」, 『우리말글』 22호, 우리말글학회, 29~65면.
김민수(1955), 「合用竝書 音價論」, 『국어국문학』 13호, 국어국문학회, 10~44면.
김차균(1984), 「15C 국어병서의 음운론적 연구」, 『한글』 183호, 한글학회, 3~65면.
김형주(1987), 『國語 語頭子音群의 研究』, 동아대학교출판부.

- 도수희(1971), 「各自並書 研究」, 『한글학회 50돌기념 논문집』, 한글학회, 69~104면.
- _____(2002), 「합용병서에 관한 몇 문제」, 『國語學』 40輯, 국어학회, 67~88면.
- 박병채(1977), 『고대국어의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 박창원(1987), 「15세기 國語의 音節境界」, 『진단학보』 64호, 진단학회, 205~220면.
- _____(1990), 「並書」,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169~177면.
- _____(1996), 『중세국어 자음연구』, 한국문화사.
- 오정란(1988), 『硬音의 國語史的 研究』, 한신문화사.
- 안주호(2002), 「≪眞言勸供·三壇施食文 諺解≫의 진언표기방식 연구」, 『國語學』 40輯, 국어학회, 89~112면.
- 유창돈(1975), 『李朝 國語史研究』, 이우출판사.
- 이기문(1955), 「語頭子音群의 生成 및 發達에 대하여」, 『진단학보』 17호, 진단학회, 187~258면.
- _____(1972a), 『改訂 國語史概說』, 탑출판사.
- _____(1972b), 『國語音韻史研究』, 탑출판사.
- _____(1988), 「音德記의 高麗詞之事에 대하여」, 『國語學』 17輯, 국어학회, 3~32면.
- 이남덕(1968), 「15C국어의 된소리고」, 『이승녕박사송수기념논총』, 을유문화사, 403~417면.
- 이선영(2005), 「사이시옷과 사잇소리에 대한 관견」, 『우리말연구 서른아홉마당』, 태학사, 539~555면.
- 이태영(1988), 『국어 동사의 문법화 연구』, 한신문화사.
- 전상범(2004), 『음운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연찬(1997), 『개정 한국어 음운론』, 한국문화사.
- 최현배(1942), 『한글갈』, 정음사.
- 허 옹(1953), 「並書의 音價에 對한 反省」, 『국어국문학』 7호, 국어국문학회, 9~15면.
- _____(1965), 『國語音韻學』, 정음사.
- _____(1985), 『국어음운학』, 샘문화사.
- 福井 玲(1993), 「中期朝鮮語의 複子音と濃音について」, 『外國語科研究紀要』, 東京大學教養學部外國語科, 113~139면.

Fleischhacker(2005), *Similarity in Phonology: Evidence from Reduplication and Loan Adaptation*, UCLA.

Spencer(1996), *Phonology*, Oxford: Blackwell.

Steriade(2001), *The Phonology of Perceptibility Effects: the P-map and its consequences for constraint organization*, UCLA.